

“에너지밸리 지속 성장”...나주시 투자 유치 팔 걸었다

3~5일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세미나·투자 상담...나주시기업 11개사 공동홍보관도 운영

나주시가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Energy Valley)’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에너지산업 업체(선도) 기업 확대 유치를 나선다.

에너지밸리는 지난 2014년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주와 광주 남구 일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에너지산업 집적화 단지를 말한다.

나주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산업 중심지 나주의 장점을 적극 알리는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올해까지 두 번째로 지역을 벗어나 성

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확대 유치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첫날인 3일은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로드쇼가 열린다.

둘째 날인 4일은 문송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MVDC(중압직류 배전)를 주제로 세미나와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투자유치 로드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구자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로드쇼는 윤병태 시장의 ‘매력 넘치는 나주

기업투자 환경’ 소개를 시작으로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협약(MOU) 체결, 유관기관 상생발전 공동협력 선언, 나주시와 한전의 에너지밸리 투자환경 공동 설명, 스타트업 10개사의 투자유치 데모데이 기업 홍보(IR)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나주 지역 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에너지산업 중심지 나주’를 알리는 공동홍보관도 운영된다.

나주시는 3~5일 사흘간 홍보관 운영 기간 동안 20개 부스에서 홍보·투자유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투자유치 로드쇼와 홍보관 운영을 통해 에너지산업 중심지 나주의 뛰어난 투자 환경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면서 “에너지밸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연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윤병태(오른쪽 두번째) 나주시장이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에서 홍보관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나주시 제공)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공연 시간이 일몰 시간에 맞춰 오후 8시로 늦춰진다.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공연시간 4월부터 오후 8시로 늦춰

길어진 일몰시간 맞춰 변경

화순군이 일몰시간이 길어지면서 꽃강길 음악분수대 1회차 공연시간을 4월부터 9월까지 오후 8시로 변경한다.

평일(화~금요일) 1회차 공연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1, 2회차 공연시간도 기존의 오후 7시, 8시에서 8시, 9시로 재조정한다.

1일이 시설점검차 휴장일었던 만큼 변경된 공연 시간은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화순읍 화순천에 조성한 꽃강길은 화려한 음악분수대와 야간경관 보도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음악분수 연출의 최적화를 위해 일몰시간에 맞춰 공연시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화순=배영희 기자 byj@kwangju.co.kr

봄꽃 만개한 나주 스포츠로 물든다

마라톤 등 대회 잇따라

유채꽃·배꽃·벚꽃이 만개한 나주의 봄이 스포츠로 물든다.

봄부터 가을까지 대규모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개최를 통해 지역에 활기가 넘쳐날 것으로 기대된다.

봄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4월에 전국 규모 대회가 줄줄이 펼쳐진다.

2~3일엔 종합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전남 도내 육상선수 700여명이 참가하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전남 육상 대표 선발대회가 진행된다.

첫 주말인 6일과 7일은 언론사 주관의 ‘나주 영산강 자전거대회’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 영산강 마라톤대회’가 각각 영산강둔치체육공원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다.

20일부터 26일까지는 전국 실업 사이클대회 중 가장 큰 규모 대회인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가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대한전자거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정통과 권위를 갖춘 대회로 전국 사이클 선수단 700여명이 나주를 찾는다.

선수단은 적응훈련을 위해 대회 이전부터 나주에서 체류할 예정이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은 영산강 그랑프론트 대회가 열린 레이스의 바통을 넘겨받는다. 지난해 5월 성공적인 초대 대회 개최에 힘입어 전국 사이클 동호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son@kwangju.co.kr



담양군 담양읍 중년쉼터 사랑방에서 지역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중년쉼터 사랑방’ 면단위까지 확대

담양읍 2곳서 4곳 추가 설치

담양군이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위해 운영 중인 ‘중년쉼터(사랑방)’를 지난해 담양읍 2곳에서 올해부터 면 단위까지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설치 이후 운영하고 있는 담양읍 군민사랑방은 일 평균 20~30명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단체모임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규 설치된 중년쉼터는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대전면 등 4개소다.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조성됐다.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면 소재지에 설치돼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쉼터에는 중장년층 소통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휴게용 탁자와 테이블 외에 바둑, 장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북카페도 운영해 차와 독서를 즐기며 정보를 공유하고 간단한 회의도 진행되는 소회의실 등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설치된 중년쉼터는 담양형 향촌복지 시책이다. 2026년까지 12개 읍·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중장년층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년쉼터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십리길 한글 공부...장성 80대 할머니의 열정

지난해 문해교실 1년간 개근

무릎 수술로 출석 어렵자

장성군 찾아가는 한글 교실

장성군이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는 십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는 어르신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 문자 해독 능력 등을 일컫는다.

장성군에 따르면 십리길 한글교실 개근 출석만 학도는 장성 삼서면 외동마을에 거주하는 나이순(81) 할머니다.

나 할머니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글 공부를 위해 매주 두 번씩 동화면 송계경로당 한글교실에 출석했다.

집에서 경로당까지는 십리 넘게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어르신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주위의 걱정과 만류에도 나 할머니는 “평생 모르던 글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니, 이제 텔레비전 자막 글씨도 읽는다”며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데 십리길도 대수겠냐”고 답할 정도로 만학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참석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겨울 미뤄뒀던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십리길 출석’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장성군은 나 할



장성군이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열정적으로 참여 중인 삼서면 외동마을 나이순 할머니. (장성군 제공)

머니처럼 배움의 의지는 있지만, 학습 장소가 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했다.

문해강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배움을 전하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새로 열었다.

이러한 배려로 수업을 받지 못해 낙담했던 나 할머니는 미소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열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며 “모든 군민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해당화 봄꽃축제’ 상품권 환급 행사

6~14일 구매액 10% 되돌려줘

강진군이 올해 처음 여는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구매액의 1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상품권 환급은 이 기간 강진읍 극장동 삼양볼링장 옆에 마련된 교환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축제장을 찾은 뒤 강진 지역 상가 물품을 산 영수증(5만원 이상)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축제가 열리는 9일간 마련된 환급 예산은 모두 1억원이다.

1인당 당일 소비금액 5만원 이상은 5000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을 방문해 종합 안내소에서 행사 응모 신청서를 받은 뒤 방문 도장을 지정된 장소(현장에서 안내)에서 찍으면 신청할 수 있다.

행사 응모는 관광객·군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신의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모바일 신분증 불가)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당일 강진 관내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만 인정된다. 상품권·현금영수증, 제로페이·착 모바일 영수증, 갈무리 사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영수증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반값여행 사전 예약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제 기간 상품권은 1인당 1회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 시간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강진군은 강진읍 삼양볼링장과 상품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 매출승인·취소 확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 발송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상품권을 회수하고, 과태료 부과·고발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처음 개최하는 강진서부해당화 봄꽃축제의 성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진에서 소비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강진사랑상품권 환급을 진행한다”며 “행사를 통해 강진 관내 상권으로 소비가 유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장흥군이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흥군은 모두 6개 작품을 선정해 총 290만원 상당 상금을 줄 예정이다. 개인이나 조 단위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1차 심사로 내부 자체 평가를 거

쳐 외부 전문가의 2차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에 선정된다.

우수작에 뽑히면 최우수 1편 100만원, 우수 2편 각 50만원, 장려 3명 각 30만원 등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작품은 앞으로 장흥군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으로 활용된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